



2017년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12월호

Contents

아반기 센터돌보기를 진영아머..... 2

2017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의 4

자립생활주택 크리스마스파티와 의식문화 체험 6

(칼럼) 2018년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 정책 9

아름다운 동행 13

강북센터 CMS자동이체 신청서 15

광고 16



2017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회

주영경



2017년 12월 14일(목) 2시 ~ 5시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에서 2017년 강북센터 평가회가 진행됐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강북센터 이용자 및 회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 모두 한 곳에 모여 서로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소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평가회 1부가 시작되었다. 내빈소개, 우수 활동보조인 시상, 단체사진 촬영 등 차례대로 1부 행

사가 진행되었고, 전년도와 다르게 2부에서는 사업담당자별 진행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를 진행하였다.

우수 활동보조인 시상, 사업담당자별 진행사업 보고 등 색다른 시도로 평가회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강북센터에서는 전년도 평가와 참여자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사업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이에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예: 클리닝 인원수 및 진행시기 조정, 체험 김치 담그기 연 2회 진행 등)



실적보고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호소통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평가회 마지막 순서로 센터에서 1년간 진행된 사업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영하였다.



영상을 보니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강북센터 평가회를 통해 2018년 사업 또한 참여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사전에 욕구조사 설문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작성해주는 참여자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 나은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응원해본다.

1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평가회는 센터와 이용자 및 회원들이 2018년 센터 진행사업 방향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고, 그렇게 3시간에 걸쳐 올 해의 마지막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반기 센터돌보기를 진행하며.....

문지수

오늘은 바로 두두두두둥~! ♪

하반기 센터돌보기 프로그램이 있으며 12월 20일(수) 13:00 ~ 16:00, 교육실(1707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센터 돌보기’ 프로그램이란?

외부자문에게 우리들이 그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를 받으며 이를 토대로 의견 및 방향 등의 조언을 받고 참고하여 내년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하반기 센터돌보기의 외부자문은 강우진 교수님(前송의여자대학교

학교 가족복지과)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강북센터)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세부적으로 나뉘지는 사업들이 있겠고요.”

“사업계획 - 추진방향 - 중간평가 - 진행 - 최종평가, 이러한 순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평가 같은 경우는 별도 서류를 작성하여 편철해야 합니다.”

서울시센터지원사업 직원들은 교수님의 자문에 궁금한 사항에는 질문을 하고 경청하며 교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

“교수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질문마다 교수님은 적극적으로 친절히 답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 관련해서 특정 기관 등 섭외해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 교수님과 소통을 통해 차후 센터지원사업 프로그램 계획 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강우진 교수님께서도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 직원교육을 연 2회 이상 진행과 지적/발달장애인 중심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강북센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즐겁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뵈요, 여러분. Have a nice day.



< 자립생활주택 >

2017년 크리스마스 파티

김다희



모두들 Merry Christmas ~ ^^
2017년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주택 모든 입주자 분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를 다함께 하며 연말 분위기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팝송도 틀어놓고 신나는 분위기에서 파티 준비를 하니 입주자 정우영 씨는 크리스마스 파티 분위기가 난다며 해맑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생각 외로 작았던 크리스마스트리에 조금은 놀랐고, 기존에 생각했던 사진 개수보다 줄어든 사진들로 트리를 꾸몄지만, 입주자 분들이 고르고 고른 예쁜 활동사진들로 크리스마스트리를 색다르게 꾸몄으며, 입주자분들은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들로 꾸민 트리를 보며 아주아주 흐뭇해하시고 만족해하셨습니다~^^

트리도 예쁘게 꾸미고 장식전구에 불도 켜보시고, 알록달록한 풍선들로 주택을 꾸미는 도중! 마치 영화 처럼 창밖으로 이쁘게 눈이 내리는 모습에 모두들 눈이 커져 베란다로 나가 손을 뻗어 내리는 눈을 느끼기도 하고, 났 놓고 내리는 눈을 바라보기도 하였답니다.

입주자 신학수씨는 '어, 저거봐 저거 눈이야 눈 내리잖아' 라고 하시며 소리 내어 크게 웃어 보이셨고, 입주자 정우영 씨는 '와 진짜 눈 오네요 정말, 말도 안되게 딱 맞춰'





눈이 와요 신기하다 너무'라고 하시며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입주자분들의 초 집중 모드!!!
하트도미노는 하나, 둘, 셋의 구멍에 맞춰 좌르륵~! 멋지게 성공하고 데덴 짜~ 구멍에 맞춰 팀을 나눈 후 짝을 지어 젠가 게임도 즐겼답니다.

젠가와 하트 도미노 세우기는 입주자분들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고,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입주자분

들이 파티도 즐기며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놀이였습니다.

어느새 바깥은 어두워졌고, 슬슬 다들 배가고픈 시간이 다가와 배달음식을 시켰으나 주택이 언덕길에 위치해 있어 배달을 가기가 어렵다는 가게들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음식을 주문한 후 찾으러 갔다 오는 것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입주자 정우영 씨는 자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며 본인의 학교 졸업식 날에는 꼭 자장면을 사주셨으면 좋겠단 이야기 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각자 새해소망을 가슴에 담고 후~ 불며 소망에 대한 소원을 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처음엔 민망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신 입주자 김옥영 씨는 제일 오래 소원을 비시며 촛불을 꺼보이셨고, 입주자 정우영씨 또한 마찬가지로 소원을 오래 빌며 촛불을 끄며 내년엔 다가올 좋은 기운을 상상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무리 하며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하는 신년덕담 및 하고 싶은 말들을 적는 롤링페이퍼 시간을 가졌으며 담당 진행인력으로서 제일 뜻 깊었던 시간이라 느꼈던 것은 입주자들이 그동안 대면 대면하며 서로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지내오며 서로 말을 섞지 않으셨는



2017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데 서로에게 글로 마음을 전하며 진심을 전하시고 롤링페이퍼를 본 입주자 분들은 크게 소리 내어 글을 읽어보시며 내가 이랬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으로 남은 것 같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게 밝게 자립생활을 하시는 입주자분들의 모습을 기대 합니다~ ^^



2018년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복지 정책

◆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다음 달부터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로 최대 약 4만 1000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선정,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급여별로는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문의할 수 있다. 배병준

2017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http://www.kbj.or.kr/sub_read.html?uid=25684§ion=sc4§ion2=

◆ 복지일자리 인원 1천명 확대, 반복참여 제한 강화

구분	기간	근로시간	지원액(천원)			
			인건비	운영비	인원 (17,352)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월~11월 주 5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1월~11월 1,574천원	12월 1,476천원	157천원 (1인/월)	4,746명
	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1월~11월 787천원	12월 746천원	79천원 (1인/월)	1,525명
복지 일자리	참여형	주 14시간 이내 (월56시간)		422천원	18천원 (1인/월)	10,044명
	특수교육·연계형	12개월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1월~11월 주 5일 25시간 12월 주 23.5시간	1월~11월 1,094천원	12월 1,032천원	116천원 (1인/월)	760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월~11월 주 5일 25시간 12월 주 23.5시간	1월~11월 982천원	12월 927천원	128천원 (1인/월)	277명

※ 일반형 및 특화형일자리 1.1.~12.31. 사업 참여자 퇴직금 지급

▲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복지일자리 배정인원이 올해보다 1000명 증원되어 1만44명으로 확대된다.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도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200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청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되며, 1만7300여 명의 장애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7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일반형일자리 전일제는 1~11월 주 5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으로 축소됐다. 월 급여는 각각 157만4000원(1~11월), 147만6000원(12월)이다.

일반형일자리 시간제는 1~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으로 월 급여는 각각 78만7000원(1~11월), 74만6000원(12월)이다. 복지일자리의 경우 근로시간은 주 14시간 이내이며, 월 급여는 42만2000원으로 동일하다.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1~11월 주5일 25시간, 12월 주 23.5시간이며, 월급은 각각 109만4000원(1~11월), 103만2000원(12월)이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도 근로시간은 같으며 월급은 각각 98만2000원(1~11월), 92만7000원(12월)이다.

내년도 달라지는 부분은 복지일자리 배정인원이 올해 9044명에서 1만44명으로 늘었으며, 반복 참여 제한을 막기 위해 반복참여자 장애인일자리 전사시스템 입력이 제한된다.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도 기존 만 5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변경되며, 타인이 근무한 경우 등 부정수급 발생 시 즉시 참여가 중단된다.

<일반형 일거리> 일자리 참여를 약속하는 문서

1. 일하는 사람
C) 하루에 4시간 일하기
유는 시간은 ___시부터 ___시까지다
C) 하루에 4시간 일하기
유는 시간은 ___시부터 ___시까지다

2. 일하는 시간
C) 하루에 4시간 일하기
유는 시간은 ___시부터 ___시까지다
C) 하루에 4시간 일하기
유는 시간은 ___시부터 ___시까지다

3. 일하는 장소
* 표시된 일장에 따라 일하는 장소가 바뀔 수 있음

4. 주로 하는 일
* 일하는 일장에 따라 하는 일이 바뀔 수 있음

5. 일하는 날
- 일요일에 ___일 일을 합니다.
- ___요일 - ___요일
* 온 일자로 하는 날 : ___요일, ___요일 (연휴 제외 날), 공휴일, 대체근로일
(대체근로일은 근무일이 필요할 때 사용 요일로 정해서 하는 일을 할부)
* 온 안 일자로 하는 날 : ___요일

▲ 장애인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알기 쉬운 문서'

제공. ©보건복지부

아울러, 장애인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알기 쉬운 문서' 도 제공한다. 참여자가 '일반 문서' 와 그림 등이 표기된 '알기 쉬운 문서' 중 선택할 수 있다.

2017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이외에도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10일 이상 무단결근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 초래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참여를 중단시킨다.

복지일자리 직무인 ‘안마 서비스’ 수행시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하며, 기본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이 추가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자료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71213151805330701>

아름다운 동행



2017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수 납 업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 납 목 적	회원회비
대 표 자	정종남	사업자 등록 번호	210-82-68864
주 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906호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신청 정보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연락처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고정금액 (원) <input type="checkbox"/>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부일
금융 거래 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p> <p>수집 및의 이용목적 : 호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p> <p>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p> <p>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p> <p>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할 [] 동의하지 않을 []</p>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p>◇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p> <p>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호성에프엠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제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할 [] 동의하지 않을 []</p>	
<p># 자동이체 동의여부 동의지 안내 : 호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p> <p>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호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p>			

- 17년 12월 회비납부 명단**
- 김낙헌 김석현 김소연 김숙이 김용자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문지수 박남주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오재준 윤두선 이동현 이상훈 이영훈
 이하용 임상욱 장민정 전난희 정민자 정종남 정주영
 주영경 최미경 최윤숙 최전균 최창현 허효숙
-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